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⑧ 녹색사찰 만들기



▶한줄 요약
기후 변화 등 환경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종교적 가르침과 조직력은 환경위기 극복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도들이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현 위기상황의 타개가 가능하다. 녹색사찰운동에 불자들과 스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불편'에 동참해보세요



지난해 12월 한마음선원은 불교환경연대 제30호 녹색사찰로 등록했다. 한마음선원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일회용기를 쓰지 않고, EM용액을 사용하는 등 생활 속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즐거운 불편운동, 녹색사찰만들기

집중실천

1.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1) 일회용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다회용컵을 사용합니다.
3) 손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화장지 사용을 최대한 줄입니다.

2. 비닐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닐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2)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방수망이나 투명망을 씁니다.
3) 떡이나 과일 등을 쌀 때도 최대한 비닐을 대신할 다른 것으로 사용합니다.

3.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1)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2) 가능하면 김치나 무조각으로 닦아 먹습니다.
3) 조리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권고실천)

4. 사찰에서 환경법회와 교육을 실시하기
1) 1년에 2회 이상 환경법회, 2-3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합니다.
2) 1년에 2회 녹색사찰 모두 함께하는 환경캠페인에 참여합니다.
3) 사찰내에서 사찰환경실천 모임을 만듭니다.

5.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1) 덜쓰고 덜버리는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합니다.
2) 나무를 심고 숲은 살리며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3) 기후위기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합니다.

경쟁사회와 종교

한국은 실제 세계적으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일본과 함께 정평이 나있다. 여성이 밤에 다녀도 문제가 별로 없는 국가로 손꼽힌다. 카페나 식당에 핸드폰이나 지갑,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사회이다. 유럽이나 미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택배물건이나 배달음식을 문 앞에 놔둬도 자기 것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역시 외국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선함을 신뢰하는 사회가 지구상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이 된 것은 유교적 윤리의 전통도 있지만, 50% 종교인들의 마음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좋은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종교이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기고 지는 경쟁사회에서 나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를 전제한다. 이러한 경쟁사회에 종교가 동원된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내 자식이 대학에 붙도록, 승진하도록,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이다. 결국 누군가는 대학에 떨어지게 하고 누군가는 승진에서 탈락하고, 누군가는 패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된다.

이러한 탐욕과 경쟁에 부처님과 예수님을 동원해 계층 상승을 돕는 거간꾼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에서 벗어나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청빈하고 가난한 소욕지족의 삶을 살라는 것이 본래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기후 변화 등 환경위기 현실화
환경문제 해결, 이제 필수과제
종교 가르침 실천이 위기 해법
사찰부터 환경운동 실천 나서야
불편해도 '녹색사찰운동' 동참을

종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환경운동에 있어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활동과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생활양식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적 실천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소욕지족의 삶과 나누는 삶이 바로 생태적 생활양식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돈과 물질중심적 사고를 거슬러 살기를 강조하는 집단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종교이다.

모든 종교의 근본가르침과 생활양식은 개인의 이익과 이윤동기를 뛰어 넘어 착하고 좋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며 그러한 사람들을 조직화한다. 모든 종교가 그 본연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실천한다면 오늘날 심각한 위기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천박한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 경건과 절제, 자발적인 가난, 주체적인 청빈, 그리고 영성과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는 인류가 쌓아온 오랜 종교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환경적 실천은 그대로 종교적 실천과 맞닿아있다. 환경운동에서 운동성과 종교성이 전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다 철저한 종교적 수행과 실천이 환경실천과 일치한다. 환경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없으며, 종교 간의 차이나 갈등 없이 그대로 일치하는 공통의 실천과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매개이다.

녹색불교운동, 시대적 과제

이렇게 종교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가 녹색적으로 변화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파장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녹색이라는 말은 환경만으로 한정된 의미가 아니다. 탐욕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를 '청색'으로 표현하고, 이를 비판하여 등장한 사회주의를 '적색'으로 표현할때 '청색'이나 '적색'이 서로 적대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은 모두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며 결국 지구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이다. 따라서 '청색'과 '적색'을 모두 부정한다는 의미로 '녹색'을 뜻하는 것이다. 녹색은 소욕지족의 삶, 돈과 물질에 의존한 위로의 발전하는 무한성장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돌봄과 상호부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옆으로 발전하는 성숙한 사회를 추구한다.

녹색불교는 탐욕을 충족하는 돈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청빈한 삶속에 마음을 밝히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이다. 또한 사람만의 현전승가가 아니라 동물과 식물, 바위와 바람, 숲과 나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사방승가공동체운동이다. 모든 것은 인연되어 연결되고 관계된 존재로 사회적 실천과정이 곧 마음공부하는 과정으로, 수행과 사회변화가 나눠져 있지 않은 불교이다. 이러한 녹색불교의 한 방편으로 녹색사찰운동을 제안한다.

녹색사찰운동 전개하자

환경위기시대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대중적인 실천은 '녹색사찰운동'이다. 전국의 1만 7000여 개의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이기도 하며 불자들의 신행공간이다. 따라서 사찰이 녹색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사찰을 녹색화하기 위해 종단에서 해야 할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개별사찰의 역할만 집중하도록 하자.

우선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과 비닐쓰레기 문제, 각종 폐기물문제, 상류계곡의 수질보존, 사찰림의 보호, 환경교육, 사찰의 냉난방 에너지문제, 교통문제등 실천해야할 다양한 의제가 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부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의 실천에 오래 집중하다 보면 다른 실천으로도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시작한 녹색사찰운동은 3가지의 집중실천과 2가지의 권고실천을 제안한다. '즐거운 불편운동, 녹색사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사찰에서 일회용품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큰 행사를 제외하고 사용을 절제한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한다 등을 집중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한다. △1년에 2번씩 환경법회와 캠페인을 실시하자 △기후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등은 권고실천이다. 실천 세부 내용은 별도의 표와 같다.

환경실천은 번거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거룩한 불편이며 오히려 불편을 즐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실천을 지속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신도들이 사찰에 오기를 꺼려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법회와 교육을 통해서 신도들이 자부심이 높아져 자기 절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는 사례가 더 많았다. 현재 녹색사찰운동의 네트워크에는 40여 개의 사찰과 전국비구니회와 한마음선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녹색사찰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불교환경연대에 협력을 요청하기 바란다. 그러면 법회와 교육지원, 강사 파견을 지원한다. 그리고 녹색사찰을 실천하는 사찰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면서 독려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고 시기에 맞는 각종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과 자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위기시대에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발심해 실천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앞서 언급했지만 종교는 많은 신자들로 조직돼 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라는 종교가 서로 다르지만 환경문제 해결에 관해 동일한 마음으로 긴밀히 함께하고 있다. 이들 종교들이 동시에 실천한다면 큰 사회변화를 이룰 수 있다. 불교가 사회를 움직이는 큰 동력이 되도록 해보자.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8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9월 5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4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2시~5시 :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 매주 화요일 2시~5시 :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수료 후 전과목 USB 증정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120만원 (전과목 교재대 포함)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다산밀축사주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①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②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③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2022년 9월 7일(수)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수 업 료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접수 연락처 054)762-5888 / FAX : 054)762-5889
접수기간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자 격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김지공